



녹색의 전화

784-2003
784-2004

발행인 : 박영숙
주 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573 두일빌딩
301호

1 호

목차

- ☐ 논단 1 쪽
- ☐ 환경초대석 2 쪽
- ☐ 현장을 찾아서 3 쪽
팔당호 시험준설현장
- ☐ 상담사례연구 4 쪽
경남 함안군 칠서면
쓰레기 매립장 반대사례
- ☐ 알아둬시다 5 쪽
- ☐ 지상공청회 6 쪽
그린벨트에 골프장 80만평 허가
- ☐ 녹색소식 7 쪽

■ 논단

정부자료의 공개와 주민여론 수렴



박영숙/녹색의 전화 대표

최근들어 환경문제와 관련된 주민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안면도에서는 핵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반대하여 이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집단사표, 중·고등학생들의 등교 거부, 노인과 어린아이들도 참가한 궐기대회 등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군산에서는 동양화학 TDI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15세 이상 군산인구의 70%에 가까운 숫자이다.

서울에서는 시민들의 반대로 팔당호 골재채취가 3개월 동안 중단되었다가 시행 기관만 바뀌고 다시 추진되고 있다. 치안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골프장 반대시위, 폐기물매립장 반대시위, 해양오염 피해어민 보상요구시위 등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2만4천명의 주민들이 참가한 73회의 집단시위가 발생했다고 한다. 매주마다 2~3건의 주민시위가 환경문제 때문에 발생한 셈이다. 왜 이러한 시위가 계속 발생하는가.

여러 가지 진단과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환경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환경행정이 주민들이 가까이 가기만 하면 두드러기가 나는 알레르기성 체질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주민 편에 서는 봉사형 체질로 과감하게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앞으로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의 조사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얻은 결론이다. 설악산 자연 파괴 현장에서 만난 철거농민들, 서해안 오염피해 현장에서 만난 영종도 어민들, 팔당호 골재채취 현장에서 만난 서울시민들, 군산 TDI공장 문제로 만난 천주교 신부님들, 가평군 골프장지역 주민들과 안면도 주민들...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정부가 힘없는 주민과 같이 있지 않고 힘있는 기업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간에 서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환경행정을 공개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제도가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 하나 만이라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여론의 수렴절차 등 평민당안을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정부자료의 공개와 주민여론의 수렴제도만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현지 주민들의 바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상담내용

환경오염 예방에 필요한 법률지식 상담

- 공해공장 입주, 공유수면 매립, 핵발전소 건설 등 각종 건설공사
- 골프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개발사업
- 기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위해를 줄수 있는 환경오염, 자연생태계 파괴행위의 중지, 예방에 필요한 법률 상담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식 상담

- 산업폐기물, 공장폐수, 분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유독물질 피해
- 비행장과 각종 건설공사 현장의 소음, 진동피해
- 방사능오염피해, 해양오염피해
- 골프장 농약사용, 관광접객업소 오수 배출 등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농산물 오염피해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재산상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법률지식 상담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담

- 현재 경영중 또는 창업을 계획중인 기업에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관심있는 기업주들을 위한 법률지식 상담

상담방법

상담신청전화 : (월) ~ (금) 10 : 00 ~ 17 : 00

- 녹색의 전화 784 - 2003, 784 - 2004로 상담실 직원에게 상담요지를 설명하고 상담신청

상담위원 상담

- 전화상담 : 전화답변이 가능할 때
- 면접상담 주 3 일, (화) (수) (금)
10 : 00 ~ 17 : 00
상담신청인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담할 필요가 있을 때
- 현지방문상담 : 상담위원이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상담신청인의 사정으로 상담실 방문이 어려울 때

결과회신

- 상담내용에 따라 현지조사,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상담실의 후속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담내용의 처리결과 회신
- 후속조치가 장기간을 요할 경우 중간진행 경과통보

상담료 무료

■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상담실은 박영숙 의원을 대표로 하여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여 설립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주민여러분과 환경보전운동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녹색의 전화 현장조사팀은 그동안 팔당호 준설현장, 경남 함안군 폐기물 매립장, 그린벨트 훼손 골프장 등의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조사와 함께 지난 3개월간의 상담활동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켜가려는 주체적 노력이 없는 한 사문화된다는 사실을 더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녹색의 전화가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녹색의 전화에 후원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월 후원회비 3000원, 5000원, 10,000원, 20,000원을 형편에 따라 정하시고 전화로 통보해 주신 다음 아래 구좌로 넣어 주십시오.

국민은행 : 816-01-0152-776 녹색의 전화

농협 : 083-02-077544 녹색의 전화

■ 녹색의 전화는 “팔당호 시험준설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와 “그린벨트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등의 환경단체와의 연대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 녹색의 전화 사무실 이전

녹색의 전화 사무실이 지난 11월 17일 이전했습니다.

주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573 두일빌딩 301호(KBS 별관 근처)